

논문 요약

본고는 빛과 색과 성경을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얽어매는(interlacing) 데 그 목적이 있다. 빛과 색에 대한 평소의 개인적인 생각을 성경의 일부 구절에 적용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매우 주관적—알레고리적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에 가까운—인 글임을 밝힌다. 빛과 색의 삼원색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전제한다. 빨강(Red, Rot)은 가장 오래된 색으로 성부 하나님을, 녹색(Green, Grün, Gn)과 노랑(Yellow, Gelb, G)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파랑(Blue, Blau)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특히 천상의 빛(light, 光)이 지상의 색(color, 色)으로 오심은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빛(녹색)은 색(노란)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의 빛의 삼원색의 하나인 그린(Green, 빛의 삼원색)에서 색의 삼원색의 하나인 노랑(Yellow, 색의 삼원색)으로 바뀌게 된다[肉化/色化, 이는 일종의 成肉身으로 해석하였다]. 색의 기호(記號)는 고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부정/긍정적인 의미의 색들의 기호가 긍정/부정적으로 서로 바뀌기 시작한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같은 색에 대한 상이한 가치 평가와 의미 부여가 존재한다.[光/色 記號의 流動狀態]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창조(form)⇨ 타락(deform)⇨ 구속(reform)⇨ 재창조(완성, transform)의 기독교 세계관의 틀과 이미와 아직 사이(already but not yet)의 긴장 관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 parousia)을 통한 하나님나라의 완성은 색에 대한 구원도 포함한다.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색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주제어: 빛, 색, 경(經/聖經), 빛의 삼원색(RGB), 색의 삼원색(CMY/K), 성육신, 하나님나라.

I 들어가는 말

단풍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학창시절에 가을 수학여행을 백양산(白羊山)으로 갔었다. 온 산의 단풍이 익었다. 너무나 예뻐서

친구들과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단풍과 관련된 우편엽서를 사기도 했다. 백양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단풍 구경을 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했던가? 예쁜 아기 단풍을 따기도 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든 단풍을 하나씩 따기 시작한 것이다. 가는 곳마다 예쁜 단풍잎 그래서 모으기 시작한 단풍잎은 그 양이 꽤 되었다. 그런데 잠시 단풍 구경을 멈추고 쉬면서 그동안 채집한 단풍을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이었다. 분명 예쁘다고 댔는데, 따놓고 보니 생각보다 예쁘지 않은 것이다. 친구들은 채집한 단풍을 일부 버리기도 했다. 나는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집으로 가지고 와 두꺼운 책 사이에 끼어 놓았다. 책에 눌린 상태에서 마르면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마른 단풍 일부는 코팅을 한 후에 가위로 정성껏 잘라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책갈피로 선물을 했다. 일부 마른 단풍잎은 엽서나 편지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하얀 종이 위에 마른 단풍을 놓고 칫솔에 분홍색과 파란색 연한 물감을 문힌 후에 칫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비비거나 치면 물감이 미세한 물방울이 돼서 단풍이 놓인 하얀 종이 위에 눈송이처럼 떨어진다.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린 다음 단풍잎을 치우면 단풍이 놓인 자리는 하얀색으로 남고 주위는 파란과 빨강으로 윤곽이 남는다. 거기에 시(詩)도 옮겨 쓰고 편지(便紙)를 쓰면 되는 것이다. 일종의 엽서(두꺼운 종이)와 편지지(얇은 종이)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쁜 단풍을 볼 때마다 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단풍은 저렇게 예쁘는데 따고 나면 그 예쁨이 반감(半減)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는 답은 햇빛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단풍나무에 있는 물든 잎에 햇빛이 비추게 되고 빛을 받은 단풍잎이 그 빛을 반사함으로써 다양한 색이 잎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단풍에 비친 빛이 그 단풍을 가장 예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닌지 ...

연구문제와 범위 그리고 한계

연구문제 1: [빛과 색과 신앙을 서로 얽어매기(interlace)]: 빛과 색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빛과 색과 신앙을 어떻게 얽어 볼 것인가?

연구문제 2: [빛과 색의 嗜好가 유동적(流動的)인 이유]: 왜 색깔에 대한 기호가 유동적(流動的)인 것일까? 색이 지역과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 [빛과 색과 신앙을 서로 얽어매기(interlace)]에서는 빛과 색에 대해 종교/신앙적 의미를 개인적으로 부여하여 서로 꼬고자/얽어매고자(twist/interlace) 한다. 일종의 알레고리적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개인적으로 시도할 것이다.¹⁾ 빛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창

1)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C%84%9C%ED%95%B4%EC%84%9D%ED%95%99>; 서방교

1:3 참조) 그런데 빛은 신의 속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빛은 신으로, 상대적으로 색깔은 인간과 세상 현상으로 표현되었음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빛[光]=神, 색깔[色]=被造物/世界)(박상진, 2012: 104 참조)²⁾ 그리고 지상의 색채(色彩)는 창조물에서 빛을 계시하는 매체(이화진, 2011: 124)³⁾라는 점에서 프리즘(Prism)과 같은 것을 통한 빛의 색깔로의 변화는 신의 인간으로 오심 즉 성육신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光的色化; 色化=肉化; 成肉身]. 연구문제 2, [색의 기호가 유동적(流動的)인 이유]에서는 색깔에 대한 기호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浮動적임을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빛으로부터 온 색깔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모두 선할 수밖에 없다—하고 지역과 나라,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같은 색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의미/평가가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색의 기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 παρουσία)으로 인한 하나님나라(Basileia tou Theou, Basileia tou Theou)의 완성되기 전까지는 유동적일/變化無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장차 색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색이 지닌 낙인을 떨칠 수 있게 된다.

과거 색/색채/색깔과 그림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나름 노력했었다. 그런데 우연찮게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화가 필리프 오토 룽에(Philipp Otto Runge)에 대한 이화진의 논문인 “룽에의 색채 이론 연구: 회화적 실천 언어에 내재된 종교적 상징성”을 읽게 된 것이다.(이화진, 2011). 본고는 이화진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룽에에 대한 나름의 개인적인 독해/이해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독해에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한 편의 논문 그것도 간접적으로 소개한 논문을 읽고 룽에 Runge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신앙은 현상과 사건 등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빛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가치가

회의 중세 성경해석((Biblical hermeneutics)인 4중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역사적 의미 혹은 문자적 의미 (sensus historicus or literalis)란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 *교훈적인 의미(sensus tropologicus)란 교훈과 도덕적 시정(the correction of morals)을 찾는 것. *풍유적인 의미(sensus allegoricus)란 문자적 의미 이상의 다른 의미를 설명하는 것. *영적 의미(sensus anagoricus)란 신비적으로 혹은 공적으로(mystically or openly) 사용되는데, 듣는 자의 마음이 하늘의 것들(heavenly things)을 묵상함으로써 감동받고 훈계를 받는 것.

- 2) “신-빛이 인간-색채로 드러나는 상징적 자연 현상이 무지개라면, 이와 반대로 악마는 어둠이며 검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박상진, 2012: 104)
- 3) “지상의 색채가 그 자신의 중간적 상태를 의식하거나 예감하면서 빛에 헌신한다면, (...) 색채 자체가 창조물 안에서 계시의 매체가 될 것이다.”(이화진, 2011: 124, 23번 각주; Runge, 1965: 1:161).; Runge, Philipp Otto (1965). Hinterlassene Schriften, 2Bd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영향을 미친 유명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이작 뉴턴(Sir Isaac Newton)의 프리즘(Prism, 빛의 분산)을 통한 무지개색 실험/관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색과 관련된 책들에서 뉴턴의 프리즘 시험을 대부분 다루고 있는 단골 메뉴다) 실제 실험에서 뉴턴이 눈으로 본 색은 빨·노·초·파 보였다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7가지 무지개색을 본 것이 아니라 5가지 색만 보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자신이 지닌 기존의 지식/가치의 영향을 받아 주황과 남색을 거기에 더 첨가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무지개색이 되었다고 한다.

“세계관이 관찰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유명한 뉴턴의 무지개색의 관찰 일 것입니다. 뉴턴은 원래 그의 실험에서 발견한 무지개 색은 빨노초파보의 5가지 색깔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뉴턴은 당시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와 자신의 색깔을 맞추기 위해 주황색과 남색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파남보’ 7원색의 무지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홍성욱, 2008: 45; 박상진, 2012: 97-98; 강운재, 2011: 112; Haller, 2019: 19; Evans, 2018: 12; Pastoureau, 2020: 209; Loske, 2020: 14; Kupferschmit, 2021: 79; Gage, 2000: 25-26; 참조)⁴⁾

아스텍 제국(Aztec Empire)의 멸망도 색/피부색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색과 관련된 신관(神觀)이 적(敵/侵略者)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disarmament)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본 침략자들은 자신의 신과 같은 흰 피부색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적을 자신들의 신의 환생이라고

4) Gage, John (2000). *Colour and Meaning: Art, Science and Symbolism*, London: Thames & Hudson. 참고로 “관찰의 문화의존성”(강운재, 2011: 112). “무지개색은 문화적 편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한 광학실험에서 단색광이 모두 일곱 가지 색으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단색광으로 합쳐진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은 여섯 가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뉴턴은 왜 분해되는 색이 모두 일곱 가지라고 했던 것일까? 아마도 뉴턴은 그 다시(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양문화에서 무지개색이 일곱 가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도 없이 자신이 일곱 가지 색을 봤다고 믿었을 것이다. 우리도 현재 뉴턴과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하지만, 이누이트에게 무지개색을 물으면 그들은 여섯 가지라고 답한다. ‘관찰의 문화의존성’이 존재하는 셈이다.”(강운재, 2011: 112).; 뉴턴보다 그 이전에 단테(Durante degli Alighieri Dante)는 무지개가 7가지 색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책 『신곡』에서 이미 언급했다고 한다. “그 위의 하늘은 일곱 개의 빛무리로 / 뚜렷이 갈라졌는데, 태양과 텔리아의 띠가 / 만들어내는 형상과 똑같은 빛깔이었다.(연옥. 29. 76-8)”(박상진, 2012: 97-98); “철학자 크세노폰(Xenophon)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지개에 빨강, 노랑, 자주의 세 가지 색깔만 있다고 생각했다. 고대 아랍인들도 빨강, 노랑, 초록의 세 가지 색만 떠올렸다.”(Evans, 2018: 12); “실험을 거듭하면서 그는 태양의 흰빛이 유리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빛이 감소되거나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이가 일정치 않은 여러 개의 색광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색광들은 색의 연속체를 이루고 있으며, 보라, 파랑, 녹색, 노랑, 주황, 빨강 순으로 순서가 늘 일정했다. 뉴턴은 처음에는 여섯 개의 색광으로 구분했으나, 나중에 일곱 번째를 추가하여 스펙트럼의 일곱 가지 색을 완성했다.”(Pastoureau, 2020: 209; Loske, 2020: 14 참조); “스펙트럼은 ‘본다’는 뜻의 라틴어 *specere*에서 유래한 단어다. 뉴턴이 색채를 7가지로 구분한 근거는 색채와 음계, 태양계와 일주일이 7일인 것이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믿음에서 왔다.”(Haller, 2019: 19)

생각했던 것이다.

신화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총 3번에 걸쳐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중 두 번이 바로 케찰코아틀(Quetzalcoatl)에 의해 만들어졌다. 케찰코아틀은 주로 녹색 깃털을 단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경우, 흰 피부색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다. 케찰코아틀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고,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식량이었던 옥수수를 창조했다. 1519년에 5백여 명의 스페인 병사들을 이끌고 에르난 코르테스(Hernan Cortes)가 아즈텍제국에 도착했다. 당시 황제였던 몬테수마 2세(Montezuma II)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유럽인들의 외모를 보고, 신의 환생이라고 생각했다.(리언, 2020: 180-182)⁵⁾

본고의 경우에도 부제(副題)인 “빛과 색에 대한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성경 바라보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가치/신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II 빛과 색 그리고 경(光·色·經)

1 빛과 색 그리고 신앙을 알레고리 해석으로 엮어매기(光·色·信仰)

1) 신의 피조물인 빛, 그러나 신적 존재가 된 빛

빛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빛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창세기』 저자는 빛(어둠과 함께 첫째 날)과 천체들(태양과 달과 별 등이 넷째 날)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하나님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 14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5) 다음의 사례도 참조하라. “순백의 햇빛은 신의 선물로 간주되어 분해하거나, 더욱 불순하게도 다른 색깔의 빛을 섞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중세시대에는 색의 혼합이 완전한 금기였으며, 뉴턴의 시대에도 여러 색을 섞어 흰색의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발상은 대역죄 감이었다.”(Clair, 2019: 17); “이러한 염색 작업의 엄밀한 세분화는 혼합에 대한 혐오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혐오감은 성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중세의 모든 감수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은 사상적, 상징적인 부분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물질문명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혼합하는 것, 뒤섞이는 것, 합병하는 것, 화합시키는 것 등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와 자연 상태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곧잘 악마가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Pastoureau, 2017: 116)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창1:3-4, 14-19, <개역개정>)⁶⁾

‘빛=신의 피조물’이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빛’ 즉 신을 빛으로/빛을 신으로 보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박상진, 2012: 104) 당시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들을 신이나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던 것이다.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도 모두 신(gods)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시편」의 시인(詩人)이 121편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6절과 7절에서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시 121:6-7)라고 노래한 것도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래한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해와 달과 별들은 그냥 천체(天體)인 해(sun)와 달(moon)과 별(stars)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시편의 시인에 의해서 노래로 불리던 당시에는 해와 달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해와 달은 햇빛과 달빛으로 사람들에게 질병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모든 환란’, all dangers, 시121:7, <CEV>)을 주는 신적인 존재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과거 우리의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이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던 것도 같은 이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재앙과 운세와 관련된 단어들이 별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앙(diaster)이라는 단어는 dis(떨어져)와 astro(별)의 복합어로 ‘별에서 떨어짐’ 즉 불길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탈리아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influenza)는 ‘별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어 축하한다는 의미의 마젤토브(Mazeltov, מצל טוב)의 경우 ‘행운’을 의미하는 mazel의 경우도 별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Sagan, 2016: 113-114 참조).^{7)·8)}

6)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창1:3-4, <공동번역 개정판>) “3 God said, "I command light to shine!" And light started shining. 4 God looked at the light and saw that it was good. He separated light from darkness”(Genesis1:3-4, <CEV>)

7) <http://bomisarang.tistory.com/382>.

<https://www.bing.com/ck/a?!&pp=c24e25cb71cecebbJmltdHM9MTY2NDY2ODgwMCZpZ3VpZD0wYmQwMDk2OS03ZTJhLTY1NWYtMTUzNS0wNjkwN2YzZjY0ODQmaW5zaWQ9NTE2NA&ptn=3&hsh=3&fclid=0bd00969-7e2a-655f-1535-06907f3f6484&psq=mazel+%eb%9c%bb&u=a1aHR0cHM6Ly9qZWwuanV3aXNoLWxhbmd1YWdlcy5vcmcvd29yZHMvMTc4NQ&ntb=1> 참조.

8) “여신은 저녁이면 태양을 삼켰다가 아침이면 다시 동쪽 지평선에 태양을 낳는다. 이렇게 사라졌다 다시 소생하는 태양은 그들에게 불사조 베누(Benu)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베누’란 ‘눈부심 속에 일어나다’란 뜻이다. 이집트인들은 베누를 머리에 붉은 태양을 이고 있는 노란 헤오라기로 그렸다. 훗날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이 불사조의 이미지를 황금빛을 띤 붉은색으로 바꿔놓았다. 이집트의 베누가 그리스로 가서 ‘피닉

피조된 빛=신적 존재, 태양/달/별=신적 존재가 되어 신으로 섬김을 받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빛의 신인 미트라를 숭배한 미트라교(Mithra)인 것이다. 태양숭배는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는데 로마의 무적의 태양신, 즉 솔 인빅투스(Sol Invictus), 그리스의 태양신 헬리오스(Ἥλιος, Helios) 숭배들이 그것들이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빛 더 구체적으로 말해 ‘참 빛’(the true light)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적인 존재이며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온, 즉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incarnate) ‘참 빛’ 즉 ‘참 신/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빛(신, a god/gods)과 구별된 ‘참 빛’(참 신, The True God)임을 드러낸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John wasn't that light]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He came only to tell about the light.] 9 참 빛[The true light]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1:6-9, <개역개정>.
[]은 CEV)

2) 오직 하나님/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God is light,’ NIV, ‘Hashem is Ohr (Light)’ OJB]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요일1:5, <개역개정> [] 본 연구자 첨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8:12, <개역개정>, “I am the light for the world!”, CEV, “I am the light of the world.” NIV)

빛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빛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창1:3)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빛(빛과 어둠, 1일째 창조)은 천체(해와 달과 별, 4일째 창조)보다 먼저 존재하였다. 천체보다 먼저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빛이 있다면 참된 빛은 천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참된 빛(참된 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화진은 룻애가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의 삼위일체에 대한 단순한 상징은 지고한 빛의 상징이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화진, 2011: 117).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빛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스’(Phoenix)가 되는 것이다. ‘피닉스’란 그리스어로 ‘빨간색’이다.”(김용희, 2005: 24)

룽에는 신의 말씀에 의해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세계가 태어난다는 성경의 창세기를 색채의 창조사로 바꾸어 쓰는 것이다. 색채의 종교적 기원을 주장한 룽에의 태도는 1803년 4월 약 혼녀인 파울리네 바생에(Pauline Bassenge)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강조된다. “세계의 위대한 빛이 수천 개의 색채로 분산된다. 우리가 모든 색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면, 우리는 빛을 이해하게 된다. (...) 신의 삼위일체에 대한 단순한 상징은 지고한 빛의 상징이다. 마치 삼색의 단순한 상징이 태양 빛의 상징인 것처럼 말이다.”(이화진, 2011: 118)⁹⁾

룽에와 같은 연구자들은 파란과 빨간 그리고 노란색만이 순수한 색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룽에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다른 색을 파생시키지 않는 가장 순수한 색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순색들이 동일한 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 삼각형을 이용한다(도판 4, Fig1.).”(이화진, 2011: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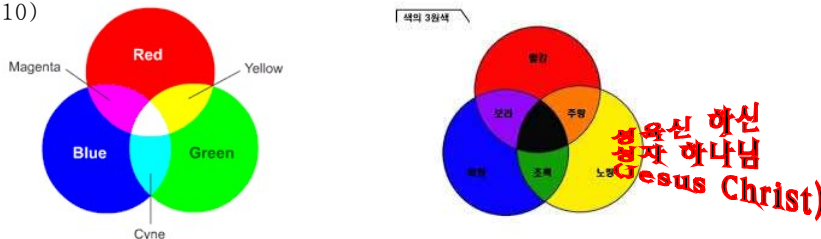
진지한 과학자이자 실천적인 기독교도였던 필드[조지 필드]는 세 개의 원색으로 이루어진 삼원색 체계를 기독교의 성삼위일체 개념과 결부했다. 레드 매더스(red madders)와 레몬 옐로(lemon yellow), 울트라마린 블루(ultramarine blue)야말로 이와 같은 성삼위의 모습을 세속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순수하고 안정적인 안료였다.(Loske, 2020: 61)

룽에의 파·빨·노(C·M·Y/Cyan·Magenta·Yellow)가 순수한 색채[색의 삼원색]라면 빛을 이루고 있는 순수한 광채[빛의 삼원색]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참된 빛=하나님, 빛은 빨·녹·파(R·G·B/Red·Green·Blue)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빛의 삼원색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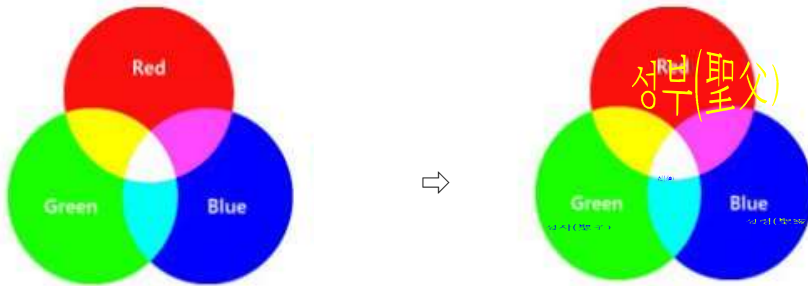
빛이 삼위일체 하나님(trinity)의 상징이라면 RGB 빛의 삼원색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매치(match)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빨강(Red, Rot, Rouge)은 성부 하나님(God the Father)을, 녹색(Green, Gelb, Vert)은 성자 하나님(the Son, Jesus Christ)을, 파랑(Blue, Blau, Bleu)을 성령

9) “위대한 하나님[Allah]께서는 다섯 가지 색채, 즉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을 창조하셨다.”(ʿAbd al-Karim, 14 재인용)(공지영, 2004: 200, [] 본연구자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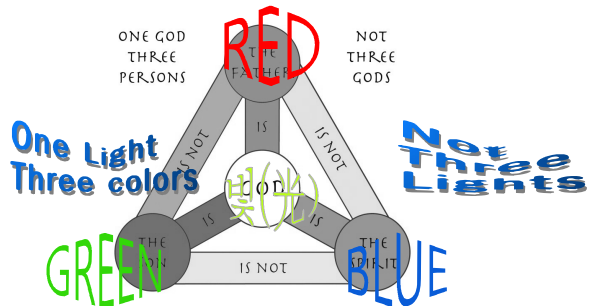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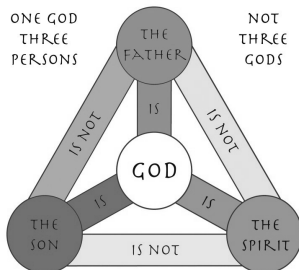
10)



하나님(The Holy Spirit)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빛과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세 위격(位格, three persons)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세 신(三神, three Gods)은 아니다. 성부 하나님(Pater)은 성자 하나님(Filius)이나 성령 하나님(Spiritus Sanctus)이 아니다(is not, non est). 그렇지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is, est). 빛의 삼원색(RG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빨강은 파랑이나 녹색이 아니다. 녹색도 빨강이 아니고 파랑이 아니다. 파랑도 빨강이나 녹색이 아니다.(is not, non est) 그렇지만 빨강도 빛이고, 녹색도 그리고 파랑도 빛이다(is, est) 참고로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인 양태론(樣態論, Modalism,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준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싶다. 참고로 천상의 빛은 하얀색이다. 모든 것을 반사함으로써 하얀색을 띤다. (加法混合, additive color mixture) 이는 신이 피조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다. 반대로 모든 것을 반사하는 빛을 통해서 빛이 창조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상의 색의 삼원색은 흡수를 통해 검은색을 창조한다. 이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를 구원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색채이든 구원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3) 빛의 삼원색에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빨강(赤色)=성부(聖父), 녹색(綠色)=성자(聖子), 파랑(靑色)=성령(聖靈)으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할 것 같다.

룽에는 17세기 신비주의자인 뵘메(Jacob Böhme)와 창세기를 결합시켜 색채의 기원을 설명한다. “뵘메가 말한 것처럼, 악마가 세상을 불태우고 그곳에 영혼을 감금하였다. 그렇지만 신의 자비가 지속되었고, 신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왜냐하면 신은 빛보다 먼저 계셨는데, 빛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빛이 태양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빛이 태양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비추었으며 어둠은 빛을 쫓지 못했다. 이때 신이 인간에게 색채를 주셨다. (...) 그리고 계시된 종교가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보여준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색채의 삼위일체를 열어 주었다.”(이화진, 2011: 117)

(1) 빨강(Red, Magenta)=성부 하나님(God, The Father)

빨강은 성부 하나님의 상징으로 개인적으로 본다. 빨강을 개인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셸 파스트루(Michel Pastoureau)는 빨강(red)과 칼라(color)가 같은 어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언어에서는 한 단어가 상황에 따라 ‘빨강’을 뜻하기도 하고, ‘채색된, 유색의’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고전 라틴어의 코로라투스(coloratus), 현재 카스티야어의 콜로라도(colorado)가 그렇다. ‘빨강’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두 형용사가 같은 어근을 갖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에서 크라스니(krasny, 빨강), 크라시비(krasivy, 아름다운), 이 두 단어는 어휘론 상으로 같은 어근에 속한다. 또한 어떤 언어에서는 색을 나타내는 용어로 하양, 검정, 빨강 이렇게 세 개의 단어만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검정과 하양은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은 주로 빛과 어둠을 형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색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빨강뿐이다.(Pastoureau, 2020: 16; 김용희, 2005: 16; Pastoureau et Simonnet, 2020: 38; Clair, 2019: 139 참조)¹¹⁾

11) “빨강이 오랫동안 색을 대표하는 색으로 존재해 왔다는 얘기가. 색깔 있다는 말은 빨강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 예컨대 영어의 ‘컬러’도 빨강을 뜻하는 ‘콜로라도’(colorado)에서 유래했다. 빨강은 색이 있고 없음을 가름하는 최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김용희, 2005: 16); “색은 색 그대로 이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빨강입니다. 빨강은 그 단독으로 모든 색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색을 의미하는 단어인 ‘컬러’(color)의 어원이기도 하고요. ... 몇몇 단어들, 예를 들어 라틴어 ‘coloratus’ 에스파냐어 ‘colorado’는 ‘빨강’을 뜻하는 동시에 ‘빛깔이 있음’을 뜻합니다. ... 빨간색만이 색(色)이었으며, 유일하게 ‘색’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Pastoureau et Simonnet, 2020: 38); “로마에서는 빨간색이 너무나도 특별한 대접을 받은 나머지 ‘색깔을

그런가 하면 빨강이 최초의 색이었으며 중심 색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빨강이 모든 문화가 공유했던 최초의 색이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히브리 구전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은 붉은 흙, 즉 토기용 찰흙으로 빚어진다. 아담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뿌리는 ‘빨강’을 의미하며, ‘피’를 뜻하는 ‘dam’이라는 낱말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아담(A-dam)은 ‘피의’(of blood)라는 뜻이다.”(Evans, 2018: 22-23)¹²⁾ 이처럼 ‘빨강’이라는 단어가 색(color)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빨강을 가리키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빨강=색(Color)/빨강(red)’을 의미하는 것처럼(이수미, 2012: 577)¹³⁾, 일반적으로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이해되기 때문이다. 과거 빨강은 높은 권위/신분을 나타내는 색이었기 때문이다. “자주색을 입다’는 표현이 ‘민간이나 군사 분야의 최고위직에 오르다’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였다. 단 전체가 자주 조개 염료로 염색된 옷들로만 구성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황제의 특권이었으며, 이것은 황제의 절대적 권위와 신성성을 상징했었다.¹⁴⁾ 그러므로 이 특권을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반역죄가 되었다. 로마의 전기 작가 수에토니우스는 칼리굴라 황제 시대(재위 37-41년)에 마우레타니아의 왕 유바 2세의 아들인 대담하고 세련된 청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주 조개 염료로 염색한 자주색 옷을 입고 로마에 나타났다가 즉시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한다.”(Pastoureau, 2020: 66)¹⁵⁾

(2) 녹색 노란색(Green, Yellow)=성자 하나님(Jesus Christ, The Son of God)

들인’(coloratus)과 ‘빨간색’(ruber)이 동의어였다.”(Clair, 2019: 139)

- 12) 피테가 뉴턴의 이론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프리즘을 통해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위치 때문이었다고 한다. “빨강이 어떤 축이나 다이어그램의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연속체의 끝부분에 위치한다는 사고가 대두되면서 수많은 예술가, 특히 피테의 불신을 야기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색으로 알려진 빨강이 ‘변두리 색’이 될 수 있을까? 물리학이 색의 순서를 조정하고 감히 색의 여왕을 가장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이에 피테는 ‘뉴턴이 착각한 게 틀림없다’라고 지적했다.”(Pastoureau, 2020: 210); “색채의 본질을 탐구하는 많은 색채이론가들은 뉴턴에서 시작된 기계적이고 환원적인 과학적 색채학을 신뢰하지 않으며, 심리학과 미학에서 구축된 전혀 다른 탐구의 길을 모색한다. 뉴턴을 반대했던 피테처럼, 그들은 인간 주체와 색채 객체라는 도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아와 색채의 관계에 관한 내적 근거에 천착한다.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색채 현상이 여전히 무한하기 때문이다.”(김종국, 2017: 418)
- 13) “빨간색은 ‘최초의 색’ 또는 ‘색을 대표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인어의 colorado는 ‘색’과 ‘빨강’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며, 심지어 카메론의 느기엠본Ngiemboon 부족어에서는 ‘빨강’과 ‘색’이 같은 어휘로 표현된다.”(이수미, 2012b: 577)
- 14) “황제의 색으로 여겼던 빨강은 ‘푸르푸라’(Purpura)라는 빨강이었다. ‘푸르푸라’는 자주색을 뜻하는 ‘퍼플’(purple)의 어원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푸르푸라’가 ‘퍼플’은 아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가장 귀하고 품위 있다고 여겼던 ‘푸르푸라’는 여러 종류의 붉은색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여기에는 크림슨(crimson)과 스칼렛(scarlet), 마젠타(magenta) 등의 짙은 빨간색뿐만 아니라 버밀리온(vermilion)까지 들어간다.”(김용희, 2005: 68)
- 15) “고대 로마에서 빨강은 곧 신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을 코치나티(coccinati)라고 불렀는데,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다.”(Greenfield, 2007: 12; 남궁산, 2018: 21 참조)

노랑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왜 이런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천상의 빛은 지상의 색채로 표현된다. 지상의 사물들은 빛을 반사함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색깔을 들어낸다. 예로 들어서 개나리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개나리가 노란색 빛만을 반사해서 개나리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빛의 반사가 색이라는 현상[光的色化]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함은 흡수가 아닌 반사(反射)라는 것이다. 신의 속성을 삶의 주변의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냄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as a perfume)’(고후2:15)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해 풍겨야만 하는 것이다.

(a) 빛이 색이 됨[光的色化/光的肉化, 녹색(Green, Grün) ⇨ 노랑(Yellow, Gelb)]

빛은 색채로 이 땅에서 구현된다.(光⇨色) 천상의 빛의 삼원색인 빨녹파(R·G·B)는 지상의 색의 삼원색인 빨노파(C·M·Y)로 이 땅에서 구현된다. 성부의 색인 빨강과 성령의 색인 파랑은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빛의 삼원색의 하나인 녹색은 이 땅에서 색의 삼원색의 하나인 노란색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전술했듯이 이를 Jesus Christ의 Incarnation을 의미로 이해한다). 영어로는 Green이 Yellow로 단어가 바뀌지만 독일어에서는 Grün(녹색, Gn)이 Gelb(노랑, G)로 즉 단어의 첫 알파벳은 G로 유사성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Green⇨Yellow로 Grün⇨Gelb로 즉, 천상의 빛(G/G)지상에서 색채(Y/Gn)로 화(化)한 것이다.

모니터에서 발하는 색들은 형광등의 발광성 합성물로 코딩되어 있고, 유리 스크린 위에 내뿜는 전자에너지의 결과이다. 이것은 디지털 신호의 결과이며, 색료 대신 색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출력할 때는 색료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며, C. M. Y. K.로 변환되는 신호 결과이다. C. M. Y. K. 결과는 R. G. B. 결과와 연결되고 있으나 실제 느끼는 시각 현상은 차이가 있다.(박현일, 2003: 8)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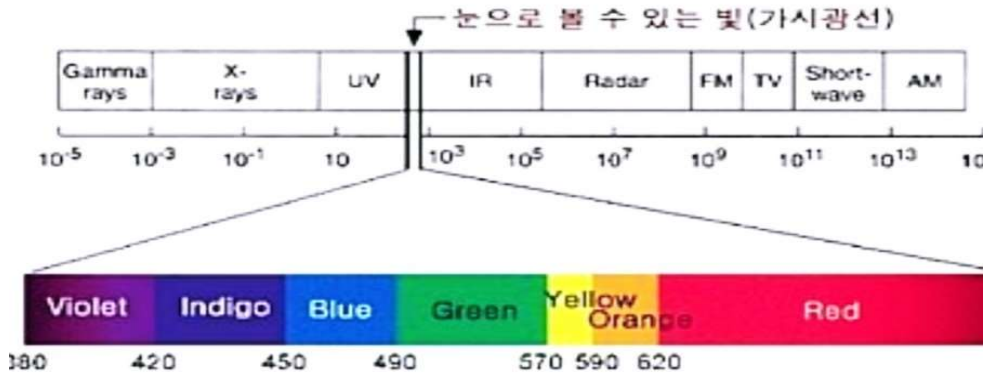
뉴턴이 사용한 프리즘(Prism)은 빛의 색의 육화를 잘 보여주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빛이 프리즘을 통해 분산될 때 다양한 색을 볼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16) “빨강, 초록, 파랑을 기반으로 하는 RGB는 컴퓨터 화면과 같은 전자 기기를 위한 가법혼색 모형이다. 이 책을 제작하는 어느 과정에서인가, 이 색상들은 인쇄를 위해 파랑, 자주, 노랑, 검정을 기반으로 하는 CMYK 감법혼합 모형으로 변환되었을 것이다.”(Loske, 2020: 144)

[그림: 빛의 색으로의 육화]



특히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컴퓨터 이미지를 출력할 때에 컴퓨터 영상(빛)과 출력한 이미지(색)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빛의 삼원색인 R·G·B를 C·M·Y로 출력할 때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상의 색 즉 색깔을 실현/구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K를 더 첨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색의 삼원색인 C·M·Y에다가 K를 더 첨가한다.(Loske, 2020: 144 참조) C·M·Y·K, 여기서 K는 Black(검은색)이다. 이는 천상의 빛이 지상에서의 색으로의 구현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lready but not yet’의 상태의 하나님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빛으로 구현되는 컴퓨터 영상(光)≠색으로 출력된 이미지(色)’, 이는 또한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빛인 가시광선(可視光線, visible rays)이 매우 제한적인 것도 같은 이치(理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의 인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이를 인지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눈으로 보이는 색에 대해서 사람마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고 한다. “색의 몇 가지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 눈으로 1,700만 가지 이상의 색이 구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230만 가지 정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인색하게 34만 6,000가지라고 한다. 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색을 열한 가지밖에 없고 다른 색은 거기에 흰색이나 검은색을 섞은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Kastan and Farthing, 2020: 40) 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도 사람마다 영적 민감성(spiritual sensibility)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17)



18)

(b) 빛의 색으로의 화(色化)/육화(肉化)는 색의 구원을 함의

빛의 색으로의 육화는 색의 구원을 함의한다. 후술하겠지만 색깔도 하나님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goodness in itself, tov, טוב)한 것이다. 모든 색깔은 모두 선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 지역과 사회와 국가마다 같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상이(相異)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색의 화/육화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Green)과 노랑(Yellow)이다. 성경은 녹색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시편 23편의 2절의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시23:2)¹⁷⁾ 후술하겠지만 푸른(green)이 지닌 긍정적 이미지는

17) <https://blog.naver.com/kcs561123/221830750111>

18)

https://www.bing.com/images/search?view=detailV2&ccid=Kbh6I%2fw2&id=DFD78EEDC5CC76ACDE65FE3CA5C7B56734EDAB3A&thid=OIP.Kbh6I_w2ZnZfIVn2NeqBxwHaCg&mediaurl=https%3a%2f%2fi.pining.com%2foriginals%2f46%2fe8%2f78%2f46e87842e603be7531117999df56ad40.jpg&exph=285&expw=841&q=%eb%b9%9b+%ec%8a%a4%ed%8e%99%ed%8a%b8%eb%9f%bc&simid=608025141760187060&FORM=IRPRST&ck=583AE2C1953B9C541C8AE1574E7AA236&selectedIndex=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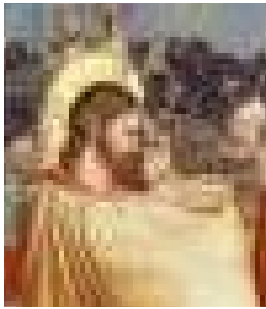
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것에 대해선 후술할 것이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성화(聖畵, a religious picture)와 관련해서 노란색의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물론 노란색도 다른 모든 색과 같이 선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젠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성화를 보면 유다(Iscariot Judas)의 옷의 색이 노란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화에서 유다를 표현하고 있는 색깔인 노란색의 의미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미셸 파스트루(Michel Pastoureau)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반으로 인해 거짓말과 불충의 상징인 색인 노랑 옷을 입은 것으로 채색되었다는 것이다. “중세 말 독일에서 회화되었던 어원론적인 말장난에서 지직한 것처럼 유다는 그가 배반한 예수의 피로 붉은색이 되었다. 여기서 그의 이름 이스카리옷(‘가리옷 출신’이라는 뜻)을 *ist gar rot*, 즉 ‘온통 붉은색인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배반으로 인해 유다에게는 거짓말과 불충을 상징하는 색인 노랑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모든 배반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는 채색화에서 노란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온다.”(Pastoureau, 2020: 177)²⁰⁾ 그런데 박상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피렌체 파(派)를 형성한 화가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7~1337)의 그림에 나오는 유다의 노랑색 옷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노랑은 더이상 배신과 불충의 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단테와 고흐가 노란색을 사용하는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토가 표현하고 있는 노란색의 옷을 입은 유다는 배반이 아닌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빛의 색으로의 화(化)는 색에 대한 구원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빛의 색채 화(化, transform)는 색을 화(和, make peace, 救援)한 것이다.

단테와 고흐는 노랑을 전능의 힘으로 공유한다. 노랑은 단테에게서 악마를 구축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함의를 갖는다. 단테의 빛은 노랑, 파랑, 빨강이 결합된 것이다. 고흐는 해바라기를 재현하기 위해 노랑을 쓴 것이 아니라 노랑을 표현하기 위해 해바라기를 그렸다. 조토

19) “2 You let me rest in fields of green grass. You lead me to streams of peaceful water”(Psalm23:2, <CEV>, 강조는 본 연구자)

20) 안느 바리송(Anne Varichon)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원후의 시대가 열렸을 때부터 노란색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서, 연극에서 야심가와 배신자는 노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란색의 부정적인 면이 강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란색은 예수를 배신한 유다, 그리고 비기독교인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나타내는 색이 되었습니다. ... 프랑스의 성왕(聖王) 루이 9세(1215-1270)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다른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뾰족한 모자를 썼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옷에 둥근 천 조각을 붙여야 했는데, 이 천 조각의 색깔이 바로 노란색이었습니다.”(Varichon, 2012: 68-70); “중세 시대에 들어와 노랑은 몇 세기 동안 쇠락의 길을 걸었다. 달갑지 않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지저분한 흰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유럽 회화는 유다에게 노란색을 입혀 그의 저주받은 이중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색에 대한 경멸감을 드러냈다.”(Evans, 2018: 70)



의 그림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황금 노랑의 후광이나 성 프란체스코의 아버지가 금색 옷을 입은 것도 떠올릴 수 있다. 조토의 그림 중 <유다의 입맞춤>²¹⁾에서 유다의 옷이 노랑으로 채색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의 ‘용서’가 유다까지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거기서 둘, 즉 배반하는 자와 배반당하는 자는 더이상 구분되지 않는다. 그것이 노랑의 전능한 힘이다.(박상진, 120: 29번 각주)²²⁾.²³⁾

(3) 파랑(Blue, Cyan)=성령 하나님(The Holy Spirit)

안느 바리송(Anne Varichon)은 자신의 책, 『THE COLOR: 세계를 물들인 색(Couleurs, Pigments et teintures dans les mains des peuples)』에서 청람색[파란색 한 종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청람은 청금석의 파란돌과 함께, 최하위 카스트인 수드라와 불가촉천민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상위 세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이 우연이라도 청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카스트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밭 사이를 걷는디든가, 청남나무 가지에 베인디든가. 청람으로 물들인 천으로 짠 음식을 먹는다면, 본래의 카스트로 되돌아가기 위해

21)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il_search=btn&DA=IIM&enc=utf8&q=%EC%9D%B4%ED%83%88%EB%A6%AC%EC%95%84%20%ED%99%94%EA%B0%80%20%EC%A1%B0%ED%86%A0&docid=336fVhU3C-Dud4aYT



22)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네 제자를 보자. 얼굴 뒤에 노란색 후광이 그려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다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 색깔처럼 어두운 후광이 그려져 있다. 예수님을 수난의 길로 접어들게 한 유다지만, 그의 눈빛에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윤인복, 2016: 175); 프라 안젤리코, <제자들의 성찬> (1441-1442년)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IIM&q=%ED%94%84%EB%9D%BC%20%EC%95%88%EC%A0%A4%EB%A6%AC%EC%BD%94%2C%20%3C%EC%A0%9C%EC%9E%90%EB%93%A4%EC%9D%98%20%EC%84%B1%EC%B0%AC%3E&docid=33uzZnwF_yPmIUz0Lm

23) “노란색을 찾았다! 빈센트가 꿈꾸던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색상’이다. 노란색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뜻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줄기’라고 할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담아낸다.(185-186) 그래서 <해바라기>는 단순한 꽃 그림이 아니다. 하느님의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아침에 해가 솟구치면 해를 향해 온 존재를 활짝 개방했다가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이내 고개를 숙이는 해바라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꽃이 아닌가?”(구미정, 2021: 186)

회복의 의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의식은 완벽한 정결의 원천인 소가 만든 다섯 가지 물질인 우유, 정제 버터, 응유, 오줌, 똥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지요. 여성은 브라만교의 성전인 베다에 관해 지식을 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카스트인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가장 낮은 카스트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여성은 이론적으로는 청람을 만진다고 해도 자신의 카스트에서 쫓겨날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청람의 이 힘이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라자스탄 지방에서는 갓난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청람 물에 푹 담근 붕대를 배에 둘러줍니다. 그들은 브라만의 방향인 북쪽 하늘에서 감기가 왔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 브라만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색이 청람이 병을 떨쳐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같은 논리로, 파랗게 칠한 흙구슬을 청람으로 물들인 무명실로 엮어서 갓난아이의 손목과 발목에 걸어, 사악한 눈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했습니다.(Varichon, 2012: 171-172)

바송의 지적처럼 인도인들이 푸른색은 최하층의 색이었으며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보혜사(保惠師, παράκλητος, parakletos, 요14:16)인 성령은 힘든 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하고(help, comfortable, encourage, defend) 치유의 영이시라는 점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색으로 푸른색(blue, Blau, bleu)으로 이해하려고 한다.²⁴⁾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개역개정>)



또한 이집트 신화에서 혼돈의 바다를 누(Nu or Nun, 그림²⁵⁾ 참조)로 신격화했는데, 이 누의 색깔이 청색이라는 것을 김관수가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문명에서는 청색을 신이 지배하는 색깔로, 천국의 색깔로 여겨 높이 평가하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청색이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였다. … 고대 이집트인들은 푸른 나일강을 보며 일생을

24) 카시아 세인트 클레어(Kassia St. Clai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을 참조하라. “성령은 종종 희끄무레한 금색의 빛과 함께 나타나는 흰 비둘기로 인류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Clair, 2019: 41)

25)

<https://www.bing.com/ck/a?!&p=cf9ac60d65abf0f1JmltdHM9MTY2NDkyODAwMCZpZ3VpZD0wYmQwMDk2OS03ZTJhLTY1NWYtMTUzNS0wNjkwN2YzZjY0ODQmaW5zaWQ9NTE2Mg&ptn=3&hsh=3&fclid=0bd00969-7e2a-655f-1535-06907f3f6484&psq=%ec%9d%b4%ec%a7%91%ed%8a%b8+%ec%8b%a0+Nu&u=a1aHR0cHM6Ly92YW5vZGlmLnRvc3RvcnkuY29tLzglMw&ntb=1>

살았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줄이었고 삶의 시작이며 끝이었다. 이집트 신화는 세상이 창조된 곳이 태초의 혼돈의 바다이며 이를 누(Nu) 혹은 눈(Nun)으로 신격화하였는데, 이 누의 색깔이 나일강의 색인 청색이라고 여겼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청색을 높이 평가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특히 청색 보석인 청금석(라피스라줄리)이나 청록색의 터키옥을 선호하여 부적이나 장신구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김관수, 2020: 35)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 구절이 나오는데(같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영(The Holy Spirit of God, or a might wind)이 수면 위로 운행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1:2, <개역개정>,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the water.” Genesis1:2, <CEV>, “the Ruach Elohim was hovering upon the face of the waters.” <OJB>)²⁶⁾

(4) 빛과 어둠으로 나눔(창1:3-4)과 성령의 열매(갈5:22-23)

(a) 빛과 어둠으로 나눔

26) 오늘날에는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붉은색을 입히는 데, 과거에는 반대였다는 것이다. 빨강이 남자/힘의 색으로 남자에게 여성에게는 파랑색을 입힌 것이다. “여자 아이에게는 으레 분홍 옷을 남자 아이에게는 파란 옷을 입힌다. 사실 과거에는 그 반대로 입힌 적도 있긴 하다.”(Kastan and Farthing, 2020: 16). “분홍과 파랑이 젠더를 상징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수백 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아기들은 색이 들어간 옷을 아예 입지 않았다. 아기들은 하얀 옷만 입었다. 여기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 흰색 옷을 표백제를 써서 쉽게 세탁할 수 있었고, 아기가 배변 훈련을 마치기 전까지는 간편한 옷을 입혔기 때문이다. 아기와 아이들이 색깔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던 20세기 초반에만 해도 파랑은 섬세한 색이므로 여자아이들에게 적합하다고 간주되었지만 분홍은 강하고 과감한 색이라는 통념이 있었다. 분홍은 빨강을 연하게 만든 색인데 빨강은 남성성과 연관되는 색이므로 남자아이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긴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 말이 되자 이 통념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Haller, 2019: 66)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데 오해해서인지 몰라도 성령은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과거 기준에 따라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인 남성성을 지니기 때문에 빨강으로 성령 하나님은 여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해석할 경우 파랑색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열렬히 숭배했기 때문에 파랑의 지위도 덩달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비로소 파랑이 독립된 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지요. 이 성당[샤르트르 대성당]에 쓰인 파랑색 유리는 오묘하며 깊은 빛을 만들너 내서, ‘샤르트르 블루’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특히 남쪽 창에 묘사된 성모 마리아에는 아예 ‘파란 성모’(Blue Virgin)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남공산, 2018: 43, 강조는 본 연구자); “프랑스의 유럽 귀족이자 고딕 건축의 선도적인 지지자였던 에보트 쉬제르는 신의 색이라며 파랑색을 열렬히 신봉했다. 그는 1130-1140년 대에 싱트니 수도원의 재건축을 감독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인들이 유명한 코발트색 창문을 만드는 기술을 숙달하여 이후 샤르트르와 르망의 대성당 건축에 기여했다.”(Clair, 2019: 184; Pastoureau, 2000: 50 참조) Pastoureau, M. (2000). Blue: The History of a Colour. trans. M. I. Crus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흰색과 검은색은 어원적으로 같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빛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창1:3-4, <개역개정>, “3 God said, ‘I command light to shine!’ And light started shining. 4 God looked at the light and saw that it was good. He separated light from darkness” Genesis1:3-4, <CEV>) 프랑스어에서 흰색을 뜻하는 블랑(blanc)의 철자가 영어의 검정을 뜻하는 블랙(black)과 닮았다는 지적이다. 즉 어원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다만 장작(長斫)의 재(灰, ash)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탄 장작은 숯(coal, charcoal)이 되어 검은색이지만 재는 흰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스콧 카스탄과 스티븐 파딩(David Scott Kastan and Stephen Farthing)은 검은색과 흰색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블랙에서 ‘표백하다’는 의미를 지닌 블리치(bleach)가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대 영어에는 blaec의 쌍둥이 (혹은 사촌) blac도 있어 한층 복잡하다. 워낙 비슷한 단어라 고대 영어 문헌에 두 단어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쓰이지 않았다. 둘을 구분해 쓸 때는, blaec은 오늘날의 black하고 대략 비슷한 의미고 blac은 창백한, 빛나는, 때로는 심지어 하얀색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두 단어 모두 ‘태우다’라는 뜻이 있는 같은 인도유럽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한 단어는 타고난 뒤에 남은 탄화된 물질을 가리키고 다른 단어는 불 그 자체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어도 언어적 태초에는 ‘black’은 칙칙하면서 반짝였고, 어두우면서 밝았고, 검으면서 희었다. 더 옛날 단어들 중에 우리가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가리키는 단어는 없었다. 예전에 쓴 단어들은 추상적인 특정 시각 경험을 가리키는 색이름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실생활 경험을 묘사하는 단어였다. 그래서 ‘검은색’(black)과 ‘표백하다’(bleach)가 같은 어원에서 나올 수 있다.(Kastan and Farthing, 2020: 226)

이수미 교수도 자신의 논문, “Blanc, 빛과 색의 경계”에서 빛과 색의 경계가 바로 블랑(Blanc)이라고 지적하는 것에서도 빛에서 어둠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렵פות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색은 기본적으로 빛에서 만들어진다. 빛의 반사가 색을 드러내므로 빛이 없으면 색도 존재하지 않는다. (...) 빛은 그 영역 내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드러내지만, 색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 대상의 속성이나 품질을 드러낸다. 즉, 빛이 인간의 가시 영역을 확보하게 한다면, 색은 대상을 구별하고 규정짓게 한다. 그런데, blanc을 분석하다 보면, 유채색들과 달리, 흰색과 검은색이 빛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이수미, 2011b: 722-723)²⁷⁾

27) 다음도 참조하라. “한편으로, blanc과 noir의 대립이 대칭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blanc은 빛을 반사함으로써

(b) 성령의 열매(갈5:22-23, The fruit of the Spirit, ὁ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개역개정>, “22 God's Spirit makes us loving, happy, peaceful, patient, kind, good, faithful, 23 gentle, and self-controlled.” Galatians5:22-23, <CEV>,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and self-control <NIV>.)²⁸⁾

성령의 9가지 열매(the fruit of the Spirit)를 기독교 전통에서는 9-모서리를 가진 별(nine-pointed Star)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진다.[그림²⁹⁾ 참조] 별 모서리에 각 열매의 라틴어



첫 글자를 써넣기도 한다.(이경손, 1999: 218)³⁰⁾ C(charitas, Love, ἀγάπη), G(gaudium, Joy, χαρά), P(pax, Peace, ειρήνη), L(longanimitas, Patience, μακροθυμία), B(benignitas, Kindness, χρηστότης), B(bonitus, Goodness, ἀγαθωσύνη), F(fides, Faithfulness, πίστις), M(mansuetudo, Gentleness, πραύτης), C(continentia, Self-control, ἐγκράτεια)을 모서리에 써넣은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복수로

나타나지만 문법적으로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the fruit of the Spirit is)로 되어 있다는 것이라든가 이를 별로 이미지화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지닌 속성이 빛이신 한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神의 屬性)이라는 것이며 이는 빛이 색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서 색채(행위)로 다양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빛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러나 noir는 빛을 흡수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부재를 함축하지 않는다. 빛이 있어도 검은색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수미, 2012a: 495)

28) “ὁ δὲ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στὶν ἀγάπη, χαρά, εἰρήνη, μακροθυμία, χρηστότης, ἀγαθωσύνη, πίστις, πραύτης, ἐγκράτεια.”(Greek NT: Nestle 1904, 출처: <https://392766.tistory.com/entry/성령의-9가지-열매>); “But the p’ri of the Ruach HaKodesh is ahavah (agape), simcha (joy), shalom (peace), zitzfleisch (patience), nedivut (generosity, kindness), chesed (loving-kindness), ne’emanut (faithfulness), Anavah (meekness, shiflut, lowliness), shlitah atzmi (self-control ...).”(OJB)

29)

https://www.bing.com/images/search?view=detailV2&ccid=M7SCaNSH&id=056E0B8D17FDD63873E055AE0E029F68C0FF973C&thid=OIP.M7SCaNSHv__PMI5cxWM58wAAAA&mediaurl=https%3a%2f%2ffwww.windstarembroidery.com%2fcw2%2fAssets%2fproduct_full%2f2636_250.gif&exph=298&expw=300&q=spirit+nine-pointed+star&simid=608015289114037542&FORM=IRPRST&ck=F5AAF13AA4A574D9DF9B9359039D2128&selectedIndex=0

30) <https://blog.naver.com/jerkoff/60043809573>.

2 빛과 색의 기호(光과 色の 記號)

1) 유동적(流動的, floating)인 빛과 색의 기호

이화여대 이수미 교수는 “색의 기호화 과정”(2011a)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색에 대한 인식과 표현의 기능 및 의미 가치 등을 분석하면서 기호로서 색이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색이 언어에 편입되는 단계, 색 어휘가 의미를 형성하는 단계, 의미가 확장을 통해 상징가치를 만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이 언어에서 독립하여 기호가 되어가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수미, 2011a: 293)³¹⁾ 그런데 기억할 것은 같은 색이더라도 다양한 기호를 가진다는 것이다. 색에 대한 기호가 지역이나 사회(장소), 국가, 시대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같은 색이라도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색과 관련된 저서나 연구 논문들에게서는 색갈[色彩語]이 지닌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색채어는 모든 언어에 존재하지만 각 언어에서 사용되는 색채어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다. 각 언어·문화에서 색채가 담고 있는 의미 영역은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는데 이는 색채 인식의 범주화 패턴, 역사적 경험, 상징화 방식이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조문항, 2013: 297)

색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당신이 “빨강은 무엇을 상징하죠?”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신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라는 나라에서 어떤 색이 의미하는 바가 B라는 나라에서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 흰색은 순수의 상징으로, 전통적으로 결혼식장의 신부들이 자신의 순결을 표현하기 위해 입는 옷 색깔이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 흰색은 죽음과 애도, 슬픔을 상징하며 전통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의 색깔이다.(Haller, 2019: 60)

정치에 쓰이는 색은 모두 각자 유래와 역사가 있으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한데 기본색은 몇

31)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경계 짓기 기능이다. … 둘째, Les nuages sont gris.[The Clouds are gray]에서처럼 일정한 색을 지니지 않는 대상을 색으로 서술하는 경우, 색은 색 이외에 다른 의미 가치를 제시한다. … 셋째, 악의 없는 거짓말 white lie, 연애소설 roman rose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색 표현은 색을 지시하거나 색을 지닌 대상을 서술하는 단계를 넘어서 특정한 개념이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색 어휘가 고유의 의미 영역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이다. …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코드화된 색체계가 있다. 색이 언어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호체계로 완성되는 최종 단계이지 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이수미, 2011a: 293-294. []은 본연구자 첨가)

개 안되다보니 색과 정치의 연결이 종잡을 수 없기도 하고 서로 상충하거나 자꾸 바뀌기도 한다. 빨간색이 민중의 색, 급진좌파의 색, 피의 희생의 색일 수 있다. 그렇지만 빨간색은 튜터 왕권의 색으로 군주의 존재, 지위,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Kastan and Farthing, 2020: 134)³²⁾

2) 유동적인 색과 유동적인 색이 되어버린 빨·녹·노·파

선한 빛/색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의미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타락 이후에 타락의 영향이 빛/색에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제 빛/색들은 긍정적 기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기호를 동시에 지니게 된 것이다.

(1) 유동의 색이 되어버린 빨강(김용희, 2005; Pastoureau, 2020; Varichon, 2012, 이수미, 2012b 참조)

빨강은 경우 사랑을 표현할 때에 순수한 사랑뿐만 아니라 순수한 사랑 이외의 다른 종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빨강은 아름다움과 광채의 색인 동시에 사랑의 색이었다. 그것이 신비주의적인 사랑이건 육체적인 사랑이건 마찬가지였다. 여러 문헌과 채색화에서 빨강은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카리타스, caritas)과 연관되지만, 부부를 이어주는 애정(딜렉티오, dilectio), 여인들의 육체적 관계(록수리아, luxuria), 심지어 극도의 음행(포르니카티오, fornicatio)과도 연관되어 나타난다. 중세의 빨강은 상징적인 의미의 폭이 매우 넓었으며, 모든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Pastoureau, 2020: 136) 붉은색은 악(惡)/마녀(魔女)와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다의 머리를 붉은색으로 채색하기까지도 했다. 악마와 거래했다는 상징으로 붉은색을 선택한 것이다. “중세의 색상 분류 체계에서 붉은색은 유다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색상이자, 사악한 인간의 상징이었다. 특히나 붉은색은 악마의 그림자 색깔 중 하나였고, 죄악을 상징하기도 했다.”(Stanford, 2016: 235) “『빨강 머리 앤』의 앤도 붉은 머리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가.

32) “나뭇잎이 빨간색을 띠고 있으면 ‘단풍이 들었다’거나 ‘가을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 하지만, 음식이 빨간색을 띠고 있으면, 한국 음식인 경우 ‘땀’이라는 정보를 지닌다. 이처럼 동일한 색이라도 대상이 변하면 색이 전하는 메시지도 변한다. 따라서 어떤 색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이수미, 2011a: 276); “요약하면 색은 항상 유연적이고 따라서 문맥 없이도 다양한 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색 표현이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여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기능도 결국은 인간이 경험한 색 인식과 맞물려 있어서, 색의 사용이나 표현이 나라마다 또는 지역이나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색에 대한 연구나 색 표현 분석은 그 언어권이 지닌 다양한 문화나 관습, 역사나 기억들을 드러내 줄 뿐 아니라, 그 언어권 사람들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보편적인 색 기호체계는 언어를 초월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색 기호화의 활성화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범국가적인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된다.”(이수미, 2011a: 294)

유럽의 경우 중세에는 붉은 머리 여자를 마녀로 몰았고, 근대에는 창녀로 의심했다. 붉은 머리 남자는 다혈질에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여겼다. …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머리카락도 그가 악마와 거래했을 거라고 추측하여 붉은색으로 그린곤 하니 말이다.”(김용희, 2005: 168-169). 오늘날에도 스페인 문화권에서는 유다의 머리카락(Judas hair)은 여전히 붉은색의 머리카락을 의미한다(red hair). “제임스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스칼렛 야수에 올라탄 여인을 보았다’라는 미사여구가 등장해, 청교도에게 당시 빨간색 예복을 착용하는 추기경이 악마라는 주장을 펼칠 근거를 제공했다. 이를 20세기의 소환사인 알레이스터 크로우리가 물려받아 여성의 욕망과 성의 상징인 텔레마의 여신, 음녀를 창조했다. 14세기 이후로 끊임없이 스칼렛의 쓰였지만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았다.”(Clair, 2019: 144).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에서 조너선 스위프트는 빨강머리를 농담조로 이렇게 풍자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빨강머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음탕하고 짓궂은 것 같습니다.’”(Evans, 2018: 53)³³⁾

(2) 유동적 색이 된 녹색/노랑(낭궁산, 2018: Coles, 2020; Varichon, 2012 참조)

녹색과 노랑도 의미나 상징에서 유동적이 되었다. 녹색은 재생과 부활을 상징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마나 용과 같은 괴물을 상징하는 색으로 때로는 부정적 의미의 상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색의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식물이 모두 초록이기 때문인지 예부터 인류 문명에서 초록은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 고대 이집트에서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시던 오시리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는 아우에게 살해당했다가 여동생들 덕에 지하 세계에서 부활했고, 이후 지하 세계의 통치자로서 지상에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봄마다 지상에 새로운 싹이 트도록 하는 오시리스의 피부색이 바로 초록색이지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초록은 성스러운 색으로서 물질과 정신의 풍요를 뜻합니다.³⁴⁾ 풀 한 포기 보기 힘든 사막에서 초록으로 가득한 오아시스를 만나면 천국과 다름없었겠어요.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린 파티마 왕조가 처음 국기에 초록색을 썼는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아랍 연맹 대부분 나라의 국기에 초록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이 언제 어디에서든 인기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중세

33) 같은 나라에서도 색깔이 지닌 의미가 부동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빨강은 고대에는 높은 지위나 고귀함과 권력을 의미하였는데, 현대에서는 혁명이나 공산주의, 진보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이견실, 2015).

34) “아랍 이슬람 문명에서도 녹색은 긍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녹색은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이며, 무엇보다도 이슬람교의 상징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호메트 앞에 나타났을 때, 마호메트는 녹색 옷을 걸치고 있었고, 천사의 날개도 초록빛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세계정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녹색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이지요. 마호메트의 계승자인 칼리프도 녹색 터번을 두르고, 알라신은 낙원에서 초록빛 새의 모습으로 날아오는 순교자의 영혼을 맞이합니다.”(Varichon, 2012: 203-204)

유럽에서는 악마의 색으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악마, 용, 괴물 등이 회화에서 초록색으로 표현되었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에덴동산에 살던 아담과 이브³⁵⁾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긴 뱀에서 초록색 악마가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초록색 파충류를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악마에 영향을 끼친 셈이지요. 요즘도 만화와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과 외계인은 피부나 혈액이 초록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걸쳐 초록색은 부유한 상인 계급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상이나 은행가 등이 밝고 고급스러운 초록색 옷을 입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냈지요.(남궁산, 2018: 86)³⁶⁾

노랑도 마찬가지다. “고대 이집트인에게 노랑(케닛, khenet)은 완벽함을 상징했다. 황금(뉴브, newb)은 신의 피부를 의미했으며, 파라오의 석관을 장식하는 색으로 사용됐다. 그리스인에게 노랑은 4개의 1차색 중 하나였다.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 헬리오스(Helios)는 노란 옷을 입고 금색 마차를 타며 하늘 위를 날아다녔다. 초기 기독교에서 노랑은 교황과 관련이 있었고, 천국으로 가는 황금 열쇠를 뜻하기도 했다. 비잔틴 교회의 황금 벽을 햇빛에 반사돼 찬란히 빛나는 성스러운 노란빛으로 방문객을 맞았다. 노랑은 모순되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다. 햇빛, 낙관주의, 창의력, 계몽의 색이지만 겁, 이중성, 탐욕을 나타내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의 창녀는 사프란으로 염색된 옷을 입었고, 로마에서는 머리를 노랑으로 물들였다. 후기 기독교 교회에서 노랑은 유다, 즉 이단자를 의미했다. 중세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16세기 스페인에서 이단으로 고발된 사람은 반역죄로 노란 망토를 입힌 후 종교재판을 받게 했다. 20세기에 나치는 사람을 구분하는 색으로 노랑을 사용했는데, 유대인에게 다비드의 노란 별이 그려진 옷을 강제로 입게 했다.”(Coles, 2020: 10).³⁷⁾ 안느 바르송(Anne Varichon)이 노랑이 가장 부동적이라는 점을

35) “여러 신학자들은 ... 여성의 월경을 원죄와 연관지었으며, 하느님께서 하와에게 내린 형벌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아담을 타락으로 몰아넣은 인물이다. 하느님은 하와를 벌하시고, 그의 딸들, 즉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하와의 잘못을 기억하도록 매달 붉은색으로 더럽혀지는 형벌을 받게 했다.”(Pastoureau, 2020: 97)

36)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에서 초록은 왕비의 사냥꾼이 공주를 해치려할 때 그의 눈빛이 초록으로 바뀌며, 어두운 숲속에서 공주를 바라보는 눈빛 또한 공포를 극대화하는 초록이며, 왕비가 공주를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 만든 독약 또한 초록이다. 영화에서 물질화된 초록은 사악하며 유독하다.”(김종국, 2017: 401).

37) “살구르 왕조(Salghurid)의 계관 시인이었던 마즈드 함가르(Majd Hamgar 1287 사망) 역시 준나르[zunnar, 허리에 두르는 노란색 띠]를 착용한 모술(Mosul)의 유대인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모술에 비교적 큰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모술 지방에 있는 두 민족들 가운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를 보아도,

머리 위에 노란색 표식이 있거나

허리에 준나르를 둘렀을 것이다.”(Hamgar 1996: 256)(신양섭, 2019: 106 재인용, []은 본 연구자 첨가) Hamgar, Majd (1996). *Divān-e Majd-e Hamgar (tashih va tahqiq-e Ahmad Karami)*. Tehran: Entesharāt-e Mā.

다음과 같이 기술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랑은 가장 모순적인 색인지도 모릅니다. 노란색은 조금만 빛바래도 사막의 건조함, 가을의 흉작, 악마의 유행, 쓰디쓴 담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노랑은 신의 상징이기 되기도, 배척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Varichon, 2012: 53)

(3) 유동적 색이 되어버린 파랑(남궁산, 2018; Varichon, 2012 참조)

파랑도 의미가 유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고대 로마에서는 한술 더 떠서 파랑을 미개인의 색으로 취급하며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자주 충돌하던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이 전쟁터에서 온몸에 파란색을 칠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로마인은 눈이 파란 사람을 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도 유럽에서 파랑은 상류층에서 버림받은 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색으로 명맥을 유지합니다. (...) 당시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열렬히 숭배했기 때문에 파랑의 지위도 덩달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비로소 파랑이 독립된 색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지요. (...) 이 성당[샤르트르 대성당]에 쓰인 파란색 유리는 오묘하며 깊은 빛을 만들어 내서, ‘샤르트르 블루’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특히 남쪽 창에 묘사된 성모 마리아에는 아예 ‘파란 성모’(Blue Virgin)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남궁산, 2018: 42-43). “코란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인들을 ‘청색’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몇몇 이슬람 왕조 시대에 이슬람 영토에 살던 유대인과 크리스도교인은 의무적으로 파란색 옷을 입어야 했지요. 이슬람교도의 파란색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는 속담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음험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을 일컬어 ‘빠가 파랑다’라고 하고, 집요한 적을 가리켜 ‘파란 적’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운수 사나운 날을 ‘파랑다’라고 표현하지요.”(Varichon, 2012: 175-177) 참고로 매춘을 상징하는 색이 유동하는 것과 더불어 남아와 여아를 상징하는 색의 유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4) 성(性)과 아이[兒童] 관련 색의 유동성

(a) 성과 관련된 유동적 색

주홍글씨(Scarlet Letter)로 대표되는 매춘이나 성과 관련된 색이라면 보통 빨간색을 생각하지만 (Greenfield, 2007: 269-270; Evans, 2018: 29 참조)³⁸⁾ 빨간색만이 아니라 노랑과 초록도

38) “주홍과 죄의 결부는 1850년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출간으로 더 강해졌다. 17세기 뉴잉글랜드가 배경인 한 그 책에서 호손은 색 상징에 관한 청교도적 개념을 그려내면서도 빅토리아 시대의 왜곡을 담아냈다. 청교도의 체벌 가운데 죄인에게 글자(간통 Adultery에 대해 A, 신성모독 Blasphemy에 대해 B, 주취 酒醉, Drunkenness에 대해 D)를 달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그 글자를 평이 한 붉은 옷감으로 만들어졌으며 가끔은 다른 색깔로

성과 관련된 색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성을 상징하는 색도 유동적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상류계층의 매춘부-헤타이라이(hetairai)-는 탄산과 노란 꽃의 즙을 섞은 고약한 액체로 머리를 탈색했다. 로마의 매춘부는 머리를 옅은 색으로 물들이거나 금발의 가발을 썼다고 한다.”(Clair, 2019: 67; Sherrow, 2006: 148, 154 참조)³⁹⁾·⁴⁰⁾ “빨간색은 적어도 중세부터 섹스의 색이라 인식되었고 매춘부의 색이라 오랫동안 사치 금지법에서 언급되었다.”(Clair, 2019: 140) “빨강과 매춘의 상관관계는 성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천사가 성 요한에게 바빌론의 대탕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그녀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물 위에 앉아 있으며, 손에는 거울을 들고 있다(음행을 나타내는 이미지), 좀 더 먼 곳에서 대탕녀는 머리가 일곱 개 달린 ‘붉은 짐승’(용)에 올라타고 있다.⁴¹⁾ 중세 채색화가들은 종종 요한의 환시를 그렸으며, 대탕녀에게는 붉은 옷을 입혔다. 한편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붉은색 옷을 입힌다.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성녀이지만(부활한 예수가 가장 먼저 그녀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본래는 붉은색 긴 머리에 화장한 얼굴의 화려계 여자였다.”(Pastoureau, 2020: 137) “요정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초록은 난혼의 색으로 굳어졌다. ‘초록 드레스를 준다’(to give one a green gown)는 표현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완곡어법이었다. 이 어구는 최소한 1600년대부터 쓰였다. 예를 들어 로버트 헤릭(Robert Herrick)은 「5월 놀이에 나선 코리나(Corinna's Gone A-Maying)」 라는 시에서 ‘관계도 수없이 해봤고(Many a green-gown has been given)/키스도 닥치는 대로 수없이 해봤노라(Many a kiss, both odd and even)’고 쓰고 있다.”(Evans, 2018: 106)

(b) 유동적인(?) 아이들의 색

여아의 옷의 색과 남아의 옷의 색에 구분되어 있는 것일까? 여자아이는 이런 색을 입어야 하고 남자아이는 이런 색을 입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이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 여성주의자들은 남자=파란색 옷, 여성=분홍색 옷에 의문을 제기한다. 옷의 색깔로 남녀 아이를 구분하는 것에 문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아=파란색, 여아=분홍색이라는 고정관념은 최근에 벌어진 것이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에는 오늘날과는 반대로

만들어지기도 했다.”(Greenfield, 2007: 269)

39) Sherrow, V. (2006). *Encyclopedia of Hair: A Cultural History*. Westport, CN: Greenwood Press.

40) “2014년에 벌어진 여성 매춘부의 시간 기준에 화대 조사에 의하면, 태생적인 또는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물들이 금발이 다른 머리칼의 소유자보다 돈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Clair, 2019: 67-68; Economist, August 11, 2014) “Going Down” Economist. (August 11, 2014). 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4/08/daily-chart-5.

41) 계17:3-4.

남아=분홍색, 여아=파란색이었다는 것이다. 과거 남아에게 분홍색의 옷을 입은 이유 중의 하나가 빨간색을 피(血)와의 연관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성적인 색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빨간색이 남성적인 색이기에 빨간색 계통의 분홍색은 남자다운 색에서 나온 색으로 빨간색과 비교해서 분홍색이 밝고 열다는 점을 착안해서 남아의 색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Evans, 2018: 158) 파란색의 경우에는 섬세한 색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아에게 적합한 색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Haller, 2019: 66) 미셸 파스투로와 도미니크 시모네(Michel Pastoureau et Dominique Simonnet)가 공저한 책, 『색의 인문학: 컬러의 비하인드 스토리』(Les couleurs expliquées en images)에서 파란색이 동정녀 마리아와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세에는 파란색이 마리아의 색으로 여성과 관련되어 있었고, 빨간색이 전쟁과 권력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성적인 색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지닌 색에 대한 이미지/기호가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다. “중세시대에는 성모 마리아의 영향으로 파랑이 여성의 이미지였고, 권력과 전쟁을 상징하는 빨강은 남성적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후 파랑은 눈에 덜 띄는 색으로 여겨져 남성의 색이 되고, 빨강은 여성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색으로 파랑을, 여자아이의 색으로 분홍을 선택하는 경향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빨강은 19세기까지 여성의 결혼식 드레스 색깔로 남아 있게 됩니다.”(Pastoureau et Simonnet, 2020: 46)

게다가 오랫동안 여자아이에게는 분홍색, 남자아이에게는 하늘색으로 성별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류사회를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남자아이가 파랑보다 분홍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245 그림 참조]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궁정 사회, 귀족층, 그리고 상류층에 한정되었다. 그 밖의 다른 사회 계층에서는 유아에게 거의 항상 흰색 옷을 입혔다. 그러다가 1930년 대에 끓는 물에 자주 세탁해도 색이 바래지 않는 직물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미국에서, 그 후로는 유럽에서 분홍색과 하늘색 옷이 보편화되었다. 이때부터는 여자아이에게는 분홍색, 남자아이에게는 파란색 옷을 입히는 풍조가 자리 잡았다. 분홍은 옛날 전사와 사냥꾼들의 남성적인 빨강을 아이들에게 어울리게 변조한 색이라는 사고가 이제 사라진 것이다. 18세기에 분홍은 대부분 남성적인 색이었던 반면, 이제부터는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색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그 유명한 바비 인형이 나타남으로써 여성적인 색으로서의 분홍 이미지를 고착화했으며, 여자아이들의 놀이와 몽상의 세계 전반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⁴²⁾(Pastoureau, 2020: 242-246)

42) Michel Pastoureau, “Rose Barbie” Anne Monier dir. Barbie, exposition (Paris. musee des Arts decoratifs. 2016). 92-98.



43)



44)



45)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성색과 여성색/여아색과 남아색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여성=빨간, 남성=파란’이라든지, ‘여성=파란, 남성=빨간’이라는 통념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

3) 빛과 빛의 색화/육화인 색의 의미와 가치가 유동적인 이유



앞서 언급하였듯이 참된 빛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빛은 선하다. 그 선한 빛의 육화된 색 또한 선하다. 옆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의 스펙트럼[그림46])을 봤을 때에 빛의 체화된 색깔에 좋지 않은(bad) 색이 없다. 그런데 왜 빛/색깔에 대해서 기호가 변동적이며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일

까?

43)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il_search=btn&DA=IIM&enc=utf8&q=%EB%B6%84%ED%99%8D%EC%83%89%20%EC%98%B7%EC%9D%84%20%EC%9E%85%EC%9D%80%20%EB%82%A8%EC%9E%90%EC%95%84%EC%9D%B4&docid=33Imyj6j4wM5_Cwbim

44)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il_search=btn&DA=IIM&enc=utf8&q=%EB%B6%84%ED%99%8D%EC%83%89%20%EC%98%B7%EC%9D%84%20%EC%9E%85%EC%9D%80%20%EB%82%A8%EC%9E%90%EC%95%84%EC%9D%B4&docid=33wZYRJcup4TbECUkC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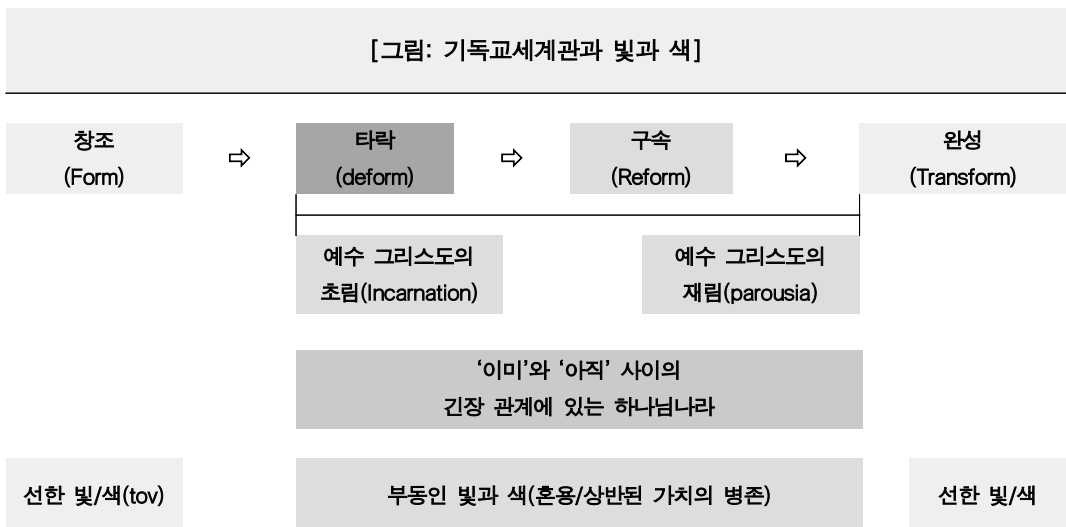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il_search=btn&DA=IIM&enc=utf8&docid=33B_Qq7OT-YoHFct6j&q=%EB%B6%84%ED%99%8D%EC%83%89%20%EC%98%B7%EC%9D%84%20%EC%9E%85%EC%9D%80%20%EB%82%A8%EC%9E%90%EC%95%84%EC%9D%B4

46)

<https://www.bing.com/images/search?view=detailV2&ccid=arq9JG4%2B&id=3B7DBB53FE1BE270A1DD9AD5FF2933B3CE994127&thid=OIP.arq9JG4-M9GtpJ0XnOEc0wAAAA&mediaurl=https%3A%2F%2Ffi.pining.com%2F474x%2Ff0%2F6d%2F41%2Ff06d419c35b98748cacc4615468d40ef.jpg&expw=224&expw=225&q=%ec%83%89%ec%83%81%ed%99%98&form=IRPRST&ck=A251B671056B33DE00651BEED25307AD&selectedindex=16&ajaxhist=0&ajaxserp=0&vt=2&sim=11&iss=VSI>

(1)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between ‘already’ and ‘yet’, The kingdom of God is between ‘already’ and ‘yet’)

빛과 색의 기호가 유동적인 이유는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 παρουσία, parousia)으로만 최종적으로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의 하나님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빛/색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빛과 색깔에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색깔에 대해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창조(Form) ⇨ 타락(Deform) ⇨ 구속(Reform) ⇨ 완성(Transform)’이라는 기독교세계관 (Christian Worldview)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을 참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 까지 빛/색의 의미와 가치는 유동적인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색에 대한 어제의 긍정적 의미가 부정적 의미로 때로는 반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돈, 권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색의 유동성, 즉 타락(deform)의 현실 속에서의 색의 유동성(流動性)

빛과 색의 이미지 등이 유동적인 것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돈(경제)과 권력, 신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빛과 색은 유동적 이미지와 가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서양인들의 목적/利害關係에 따라 동양인들을 상징하는 색은 변화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흰색으로(백인과 같은) 보였지만, 이익에 합치되지 않을 때는 노란색으로 보였다는 것이다.[일종의 ‘황화(黃禍, yellow peril)’⁴⁷⁾] “아시아인이 서양인 눈에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는 상대로 보일 때에는 희게 보인다. 16세기 중국과 일본에 간 예수회 선교사들에게는 그랬다. 그러나 서양의 도덕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에 위협이 되는 듯한 때에는 노래진다. 상상한 도덕적 특성이 상상한 피부색과 뒤섞인다. 아시아인은 노란 인종이 되는데, 채도가 높고 밝은 익숙한 노란색(노란 스마일 마크의 색)이 아니라 병색이 완연한 누르께한 색이다. 멀라닌 때문이 아니라, 의혹 때문에 서양의 불안과 편견이 투사되어 색이 어두워졌다. 노란색은 부패, 비겁, 이중성, 타락, 질병의 색이다. 적어도 그들의 노란색은 그랬다. 색소가 아니라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노란색이었다.”(Kastan and Farthing, 2020: Keevak, 2016, 101; 80 참조⁴⁸⁾) 자신들의 나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색에다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대청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인디고가 처음부터 유럽에서 환영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유럽에는 대청 재배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대청 농업을 보호하려고 인디고를 만든 염료를 쓰면 사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인디고에서 얻은 파랑을 ‘악마의 색’이라며 금지했구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역시 한때 영국에서 인디고를 모두 없애 버리려고 했지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디고의 인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청보다 월등히 색이 진하니 당연한 결말이었겠지요. 결국 유럽에서 대청 농가들은 사라졌고 나중에 영국은 식민지 인도의 농토 절반을 인디고 경작에 쓰다시피 했는데, 그런데도 염료 생산량이 모자랐다고 합니다.”(남궁산, 2018: 56) “14세기 중반, 인기가 높아진 파랑을 빨강과 라이벌이 되기에 이름니다. 고대에는 이름도 없던 색이 최초의 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지요. 꼭두서니로 빨간색 염료를 만들던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염료 상인들은 빨강과 파랑 중 한 가지만 취급했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빨간 염료 상인들은 스테인드글라스 직공들에게 악마나 지옥을 파란색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파란색 열풍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결국 16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군주들은 파란 옷을 애용했고, 빨간 옷은 교황 등 일부만 입게 되었습니다.”(남궁산, 2018: 45)

47) “린네[Carl Linnaeus]는 흑과 백의 ‘중간’을 의미하는 색이 아니라 특히 허약함과 질병을 암시하는 색을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베르니에[Francois Bernier]가 인도 여성이 체현하는 황색은 아름다운 황색이자 황달 걸린 자의 황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때 그 역시 황색의 이중적 의미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어쨌든 린네는 ‘아시아인’(Homo asiaticus)을 분류할 때 후자의 황색으로 규정했다. 이때 그는 분명히 의학과 식물학이라는 자신의 두 전문 분야를 토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것이다.”(Keevak, 2016: 96, [] 본연구자 첨가)

48) “중국과 일본의 피부색은 칠두칠미 서고의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미해결이다. 왜 하필 황색인가?”(Keevak, 2016: 80)

(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나라의 완성은 빛/색의 구원(救援)을 의미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usia)으로만 하나님나라는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빛과 색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빛과 색의 이미지 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색과 관련하여 인종 문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피부색의 차이로 인한 인종 간의 차별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과 관련된 신화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면 신들(gods)이 인간을 만들 때 색깔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위대한 하나님[Allah]께서는 다섯 가지 색채, 즉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인간의 피부색을 네 가지, 즉 흰색,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으로 만드셨다”(ʿAbd al-Karim, 14 재인용)(공지영, 2004: 200, [] 본연구자 첨가)⁴⁹⁾ 빛과 색이 선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면 과거와 오늘날에 있는 피부색에 의한 인종 간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빛이 선한 신으로부터 왔고 빛의 육화된 것이 색으로 색 또한 선하기 때문에 피부색을 어떤 색으로 표현하든지 상관없이 ‘좋은/선한 /Tov/Good)인 것이다. 색깔로의 피부색의 표현은 인종차별(racism)이 아니라 토브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색에 의한 인종 간의 차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살색에 명칭이 인종차별적인 색명(色名)이라고 해서 살색이 아닌 살구색(peach color)로 명칭이 바뀐 적이 있었다.⁵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살색이라고 해도 상처받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색이 선하기 때문이며, 피부색에 대해서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누구도 차별하지도/차별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색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하다고 생각하여지기 때문이다. 검은 피부는 검은 피부만으로도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그 어떤 피부도 차별 없이 그 피부색 자체로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그림] 참조⁵¹⁾)

49) “고대 이집트인들 역시 이 세상에 네 가지의 인종이 있다고들 믿었다. 빨간색은 그들 자신의 색이었고 노란색은 아시아인들의 색이었으며, 흰색은 지중해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의 색이었고, 검은색은 흑인들의 색이었다.”(파버 피렌, 1985: 32)(공지영, 2004: 200, 4번 각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흰색 피부를 가진 이들이 아닌 붉은 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홍인종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붉은 피부야말로 가장 우월한 종족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보면 정통 이집트 남자는 붉은색으로, 여자는 회색으로, 나머지 이방인들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지금은 탈색되어 회색이면 모래색으로 변해버린 스펅크스의 얼굴 역시 붉은색이었다고 한다.”(김홍희, 2005: 23)

50) “여하튼 어떤 맥락에서든 colored people에도 people of color에도 ‘백인’은 안 들어간다. 백인은 색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당연히 백인도 색이 있다. 백인도 하얗지는 않다. 1962년, 크레올라 경영진은 1949년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살색’(Flesh)이라고 불려온(1903년 처음 크레올을 생산할 때부터 1949년까지는 살색조 Flesh Tint라고 했다) 크레올이 백인의 살 색깔하고만 비슷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크레올 이름을 ‘복숭아 색’[peach]으로 바꾸었다(105 페이지 그림 16 참조)”(Kastan and Farthing, 2020: 104).

인도에서 20세기 후에 동물학대로 인정되어 사라진 ‘인도의 노랑’이라고 불리워진 ‘몽기르 피우라’라는 주황색을 얻기 위해서 소를 학대했는데 좋은 색을 얻기 위한 그러한 종류의 학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흔히 ‘인도의 노랑’이라고 부르는 ‘몽기르 피우라’ 역시 인도에서는 주황색의 일종이라고 여깁니다. 투명도가 높아서 주로 수채화 물감으로 쓰이던 몽기르 피우라는 지린내 같은 악취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암소의 오줌이 원료입니다. 오줌이 떨어진 흙을 등글게 굴려서 만들었지요. 끔찍한 사실은 병든 소의 오줌일수록 진한 색이 만들어지기에 일부러 소가 병에 걸리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물을 거의 주지 않고 망고 잎만 먹였다고도 하지요.(남공산, 2018: 181-182) 색을 얻기 위해 이처럼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II 나아가는 말

빛과 색에 대해서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나뉜 성경을 바라보았다. 빛을 천상의 세계로 색을 지상의 세계로 이해하였다. 빛의 삼원색(빨·녹·파/R·G·B)을 성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았다. 빨간색은 성부 하나님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빨간색이라는 어원을 보면 색(color)과 빨간(red)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상의 빛의 삼원색은 지상의 색의 삼원색으로 나타난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incarnation)로 보았다. 천상의 빛이 지상의 색으로의 표현될 때 녹색(Grün, Gn)이 노랑(Gelb, G)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녹색과 노랑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것이다. 파란색을 성령 하나님으로 봤는데, 이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1:2, <개역개정>)라는 언급에서 물과 관련된 색인 파란으로 이해한 것이다. 빛은 하나님이 선(tov)하게 창조하셨고, 선한 빛을 사물들이 반사함으로 색을 표현된다면 색 또한 선하다(tov). 그런데 빛과 색에 대한 이미지나 의미, 그리고 상징이 부정적인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빛/색의 기호가 부동/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한다. 하나님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빛과 색의 기호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완성되면 창조 시에 빛과 색이 선했던 것처럼 빛과 색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색은 어떤 색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선하고 존중함을 받게 될 것이다.

51)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IIM&q=%EC%82%B4%EC%83%89&docid=33lrWIE0iYx6eO3V0D

참고문헌

- 강윤재 (2011). “06. 빛의 이중성: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과학적 방법과 과학의 인식론”. 『세상을 바꾼 과학논쟁』. 서울: 궁리. 91-113.
- 공지현 (2004). “한국어,아랍어 색채어의 의미에 관한 연구-기본 색채어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25(1). 195-216.
- 구미정 (2021). 『그림으로 신학하기』. 파주: 서로북스.
- 김관수 (2020). 『역사 속의 색채: 과학과 예술의 만남』.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김종국 (2017). “영화의 초록, 생명과 물질”. 『만화에니메이션연구』. 49. 399-423.
- 김용희 (2005). 『빨강: 매혹의 에로티즘에서 금기의 레드 콤플렉스까지』. 서울: (주)시공사.
- 남공산 (2018). 『문명을 담은 팔레트: 인류와 함께한 색 이야기』. 초판4쇄. 파주: (주)창비.
- 리 언 (2020). 『명화로 읽는 전염병의 세계사』. MUSE.
- 박현일 (2003). “디지털 시대의 색채 문화(2)-1980년 대의 색채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27. 83-101.
- 신양섭 (2019). “고전 페르시아 문학에 비친 반(反)유대주의 표현 연구”. 『중동문제연구』. 18(2). 91-134.
- 윤인복 (2016). 『그림에숨겨진 하느님』. 서울: 바오로딸.
- 이견실 (2015). “중국의 상징색 ‘빨강’의 역사적 고찰”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16(42). 67-76.
- 이경손 (1999). “기독교의 상징에 관한 연구: 문양 및 색채를 중심으로”. 『배화논총』. 18. 203-235.
- 이수미 (2012a). “색어휘 blanc과 noir의 의미기능”. 『불어불문학연구』. 91. 493-516.
- 이수미 (2012b). “색 기호 rouge의 의사소통가치”. 『불어불문학연구』. 92. 575-599.
- 이수미 (2011a). “색의 기호화 과정”. 『기호학연구』. 30. 271-298.
- 이수미 (2011b). “Blanc, 빛과 색의 경계” 『불어불문학연구』. 88. 721-743.
- 이화진 (2011). “릉예의 색채 이론 연구: 회화적 실천 언어에 내재된 종교적 상징성”. 『美術史學報』. 36. 113-144.
- 조문항 (2013). “이탈리아어의 색채어 표현 연구”. 『이탈리아어문학』. 39. 275-304.
- 홍성욱 (2008). 『홍성욱의 과학에세이: 과학, 인간과 사회를 말한다』. 서울: 동아시아.
- Clair, Kassia St. (2016). The Secret Lives of Colour. London: Hodder & Stoughton. 이용재 역 (2019). 『컬러의 말: 모든 색에는 이름이 있다』. 파주: (주)월북.
- Coles, David (2020). Chromatopia. London: Thames & Hudson. 김재경 역 (2020). 『예술가들의 사랑한 컬러의 역사』. 서울: (주)영진닷컴.

- Evans, Gavin (2017). *The Story of Color: An Exploration of the Hidden Messages of the Spectrum*. 강미경 역 (2018). 『컬러 인문학: 색깔에 숨겨진 인류 문화의 수수께끼』. 파주: 김영사.
- Greenfield, Amy Butler (2005). *A Perfect Red: Empire Espionage, And The Quest For The Color Of Desire*. 이강룡 역 (2007). 『퍼펙트 레드: 제국, 염탐 그리고 욕망의 색을 향한 탐색』. 서울: 바세.
- Haller, Karen (2019). *The Little Book of Colour*. London: Penguin Books. 안진이 역 (2019). 『컬러의 힘: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언어』. 파주: (주)일북.
- Kastan, David Scott and Stephen Farthing (2018). *On Color*. Yale University Press. 흥한별 역 (2020). 『온 컬러: 색을 본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서울: 갈마바람.
- Keevak, Michael (2011). *Becoming Yellow: A Short Story of Radical Think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효석 역 (2016). 『황인종의 탄생: 인종적 사유의 역사』. 서울: (주)현암사.
- Kupferschmit, Kai (2019). *BLAU, WIE Die SCHÖNHEIT IN DIE WELT KOMMT*. Hamburg: Hoffmann und Campe Verlag. 문향심 역 (2021). 『블루의 과학』. 1판2쇄. 서울: 반니.
- Loske, Alexandra (2019). *Colour: A Visual History*. 조원호·조한력 공역 (2020). 『색의 역사: 뉴턴부터 패튼까지, 세상에 색을 입힌 결정적 사건들』. 고양: 미술문화.
- Pastoureau, Michel (2016). *Rouge: hitoire d'une couleur*. Edition du Seuil. 고선일 역 (2020). 『빨강의 역사: 인류는 왜 빨강에 열광하는가』. 고양: 미술문화.
- Pastoureau, Michel (2000) *Bleu: Histoire diune couleur*. Editions du Seuil. 고봉만 역 (2017). 『파랑의 역사』. 서울: (주)민음사.
- Pastoureau, Michel et Dominique Simonnet (2015). *Les couleurs expliquees en images*. Editions du Seuil. 고봉만 역 (2020). 『색의 인문학: 칼러의 비하인드 스토리』. 고양: 미술문화.
- Sagan, E. Carl (1980). *COSMOS*. 홍승수 역 (2016). 『코스모스』. 특별판. 서울: (주)사이언스북스.
- Stanford, Peter (2015). *Judas*. London: Hodder & Stoughton. 차백만 역 (2016). 『예정된 악인, 유다: 누가 그를 배반자로 만들었는가』. 서울: 미래의창.
- Varichon, Anne (2005). *Couleurs, Pigments et teintures dans les mains des peuples*. Paris: Editions de Seuil. 채아인 역 (2012). 『THE COLOR: 세계를 물들인 색』. 서울: 이종.